사계절 양잔디의 환상적인 골프장으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함평 다이너스티 컨트리 클럽
탄력적인 그린피 시스템 운영
인터넷회원 예약시
평일 최대 3만원, 주말 최대 5만원까지 할인가능
예약 : www.hpdynasty.co.kr 061)320-7700,7714

손민한 '특급投' 6이닝 탈삼진 9

한국, 독일에 12-1 콜드승

5연승…올림픽행 확정적

베이징올림픽 최종 예선

손민한이 12일 오후 대만 타이중 인터컨티넨털 구장에서 열린 베이징올림픽 야구 최종 예선 5차전 독일과의 경기에서 역투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경문 감독이 이끄는한국 야구대표팀은 12일 대만 타이중 인터컨티넨털 구장에서 계속된 베이징올림픽 최종예선 5차전에서 유럽 예선 4위를 차지한 약체 독일에 장단 11안타를 몰아쳐 12-1, 7회 콜드게임 승리를 거뒀다.

대표팀은 투타의 완벽한 조화를 앞세워 초반부터 독일 마운드를 초토화시켰다.

1회말 톱타자 이용규가 중전 안타로 포문을 연 뒤 2루를 훔치고 1사 후 상대 투수의 보크로 3루를 밟으면서 기회를 잡은 대표팀은 고영민의 1루수 앞 짧은 안타 때 이용규가 재치있게 홈을 파고 들어 선취점을 얻었다.

계속된 2사2루에서 이대호가 중전 적시타를 터뜨려 대표팀은 2-0으로 앞서갔다.

2회 초 수비 때 도널드 루츠에게 우월 솔로포를 허용한 대표팀은 돌아선 말 공격에서 상대 포수의 연속 패스트볼로 손쉽게 두 점을 보탰고 2사 1,3루에서 이승엽의 투수 앞 내야 안타가 나오면서 점수를 5-1로 벌렸다.

이어 4회 타자 일순하며 볼넷 4개와 2루타 2방 등으로 대거 6점을 뽑아내며 콜드게임 승리 요건을 갖췄다.

모친 병 간호로 조기 귀국한 김동주(두산)을 대신해 이날부터 4번 타자로 나선 이승엽(요미우리)은 3타수 2안타 3타점으로 공격을 주도했다. 특히 4회 무사 만루에서 깨끗한 2타점 우전 적시타를 터뜨리며 대량 득점의 발판을 놓았다. 이번 대회 타점은 12개째다.

톱타자 이용규(KIA)도 2안타를 때리는 등 좋은 타격감을 이어갔다. '전국구 에이스' 손민한(롯데)은 6이닝 동안 삼진 9개를 잡는 빼어난 피칭으로 독일 타선을 1점으로 틀어 막았다. 7일 남아프리카공화국전에 이어 2승째.

대표팀은 13일 오후 7시30분 인터컨티넨털구장에서 좌완 투수 류현진(한화)을 앞세워 '캐나다 사냥'에 나선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연합뉴스

"목표는 항상 메이저 우승"

■ 밸런타인챔피언십 앞둔 최경주

"아직 부족한 것이 많다. 욕심을 버리고 편안한 마음으로 메이저 대회를 준비하고 있다"

세계골프랭킹에서 역대 최고인 5위까지 뛰어 오른 한국골프의 간판 최경주(38·나이키골프)가 한달여 앞으로 다가온 메이저대회인 마스터스 제패의 야망을 조심스럽게 밝혔다.

13일 개막하는 유럽프로골프 밸런타인 챔피언십 출전을 앞둔 최경주는 12일 제주 핀크스골프장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쇼트게임과 스윙 밸런스에 대한 문제, 빠른 그린 스피드에 대한 적응 문제 등 준비해야 할 부문이 많다"고 털어 놓았다.

최경주는 "아무래도 한국에서 경기를 많이 해 왔기 때문에 미국 잔디에 대한 부담감이 있다"며 "3, 4 ,5번 아이언을 더 잘쳐야 하고 볼을 높이 띄우고도 그린 위에 세울 수 있는 기술을 가다듬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쇼트게임·스윙 밸런스 보완해야 할 부문 많아"

앤서니 김과 1·2R 한 조

하지만 최경주는 "보완해야 할 부분들이 대회를 치르면서 조금씩 해결되고 있어 메이저 대회 우승의 꿈은 아직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밸런타인 챔피언십 1, 2라운드에서 앤서니 김(23·나이키골프)과 동반플레이어가 된 최경주는 "앤서니는 파워풀한 스윙을 하고 20대 초반의 활기넘치는 경기를 하는 유망한 선수"라고 평가하며 "어릴 적부터 미국에서 제대로 된 선생님들에게 골프를 배웠기 때문에 나보다 잘 할 것"이라고 칭찬했다.

대회조직위원회는 12일 발표한 1, 2라운드 조편성에서 최경주, 앤서니 김을 같은 조에 편성해 최고의 흥행 카드로 내세웠다.

최경주와 앤서니 김은 크리스 디마르코(미국)와 함께 13일 낮 12시15분 1번홀에서 출발한다.

최경주는 이전에 앤서니 김을 만났을 때 캐디 선택에 대해 "코스를 잘 아는 캐디보다는 선수를 잘 아는 캐디를 택하라"는 충고를 해 준적이 있다고 했다.

최경주는 현재 자신의 캐디인 앤디 프로저에 대해 "형같고 아저씨 같고, 때로는 아버지같기도 한 마음이 따뜻한 분"이라며 "경기가 잘 안풀릴 때 앤디가 해주는 말 한마디가 경기력에 큰 도움을 준다"고 말했다.

최경주는 또 제주의 심한 날씨 변화에 대해 "자연을 이기려고 한다면 좋은 성적이 나오지 않는다"며 "멀리서 온 선수들도 있기 때문에 나흘 동안 좋은 날씨가 계속되도록 기도하겠다"고 덧붙였다.

루키 최용규·나지완 공·수·주 맹활약

KIA, 삼성에 2연승 프로야구 시범경기

KIA타이거즈가 신인들의 활약에 힘입어 삼성 라이온즈를 상대로 시범경기 2연승했다. KIA는 13일 대구구장에서 벌어진 삼성과의 경기에서 2-0으로 이겨 시범경기 3승1패를 기록했다.

KIA 양현종과 삼성 정현욱의 팽팽한 마운드 대결은 5회초 KIA가 선취점을 뽑으면서 균형이 깨졌다.

가장 먼저 홈을 밟은 선수는 3루수이자 6번 타자로 출전한 신인 최용규였다.

5회초 선두타자로 나선 최용규는 1루수 옆을 빠지는 안타로 경기를 풀어나가지 못하던 KIA의 공격 물꼬를 텄다. 이어 2루 도루에 성공한 최용규는 송산의 희생타로 3루를 밟았다.

고졸신인 김선빈은 2사에 우전 적시타를 터트리며 동기 최용규를 홈으로 불러들였다.

전날 경기에서 4타수 3안타로 팀의 승리를 이끌었던 '신인왕 후보' 나지완도 신인들의 활약 무대에 동참했다.

이날 4번 타자로 출전한 나지완은 7회초 유격수 키를 넘기는 안타로 출루한 뒤, 최경환의 2루타 때 홈을 밟으며 팀의 승리를 굳혔다. 9회초에는 중전 안타로 출루해 도루까지 기록했다.

우익수로 나선 나지완은 3회에는 최형우의 큼직한 타구를 여유롭게 소화한 뒤, 6회에는 완벽한 홈송구로 홈에 들어오던 심정수를 막는 등 공·수·주 모두 신인답지 않은 맹활약을 보였다.

선발투수로 마운드에 오른 2년차 좌완 양현종은 5이닝동안 21타자를 맞아 4안타 3볼넷으로 삼성 타선을 틀어막아 승리 투수가 됐다.

인천 문학구장에서는 광주일고 출신의 LG 신인투수 정찬헌이 12명의 타자를 맞아 피안타 없이 삼진 3개를 뽑아내는 완벽한 투구로 팀의 9-5 승리를 이끌었다. 사직구장에서는 한화가 3-1로 롯데를 제압했다. 목동구장에서 예정됐던 우리와 두산의 시범경기는 그라운드 및 부대시설 보강공사로 인해 취소됐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박태환 실전감각 익히기

21일 한라배 수영 출전

개인훈련을 하다 수영대표팀에 복귀한 '마린보이' 박태환(19·단국대·사진)이 베이징올림픽을 앞두고 국내 대회에 잇따라 출전하며 실전 감각을 가다듬는다.

지난달 25일부터 말레이시아에서 대표팀을 이끌고 전지훈련을 진행 중인 노민상 경영 대표팀 총감독은 12일 "박태환을 비롯한 대표 선수들이 21일부터 열리는 한라배 수영대회에 출전한다. 박태환은 자유형 200m만 뛸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15일 오전 3주 전지훈련을 마치고 귀국하는 대표팀은 태릉선수촌에서 3-4일 정도 머문 뒤 곧 제주도로 내려갈 예정이다. 노 감독은 대회기간에도 다른 수영장을 물색해 훈련을 쉬지 않을 예정.

장거리가 주종목인 박태환이 단거리로 분류되는 자유형 200m만 뛰는 것은 아직 컨디션이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LPGA 태극자매들 멕시코 원정

15일 마스터카드클래식 출전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하와이 시리즈 2개 대회와 싱가포르 원정에서 이렇다 할 성적을 내지 못한 '코리언 군단'이 멕시코에서 첫 우승에 도전한다.

15일 멕시코시티 보스케 레알골프장(파72·6천901야드)에서 치러질 마스터카드클래식은 조건부 출전권 선수들에게 기회의 무대이다. 전경기 출전권을 가진 선수 상당수가 참가를 꺼려 무려 50명이 넘는 조건부 출전권 선수들에게 기회가 주어진다.

올해도 조건부 출전권 선수 52명에게 출전 기회가 돌아갔다. 상위 랭커들은 대부분 출전하지 않았다. 작년 7월 이후 소식이 끊긴 한국 선수의 우승 가능성이 그만큼 높다는 뜻이다.

지난해 상금랭킹 20위 이내에 들었던 상위 랭커 가운데 이 대회에 출전 신청을 낸 선수는 5명 뿐이다.

고국에서 열리는 대회여서 외면하지 못한 상금왕 로레나 오초아(멕시코)와 스테이시 프라마나수드(미국)를 뺀 나머지 3명은 이선화(22.CJ), 장정(28·기업은행), 이지영(23·하이마트) 등 한국의 간판 선수들이다.

월등한 기량을 뽐내고 있는 오초아를 뛰어 넘는 것이 가장 큰 과제이다. 오초아가 보스케 레알골프장과 궁합이 잘 맞지 않는다는 사실이 고무적이다. 오초아는 2005년 5위, 2006년 공동 34위, 그리고 작년 공동 6위를 차지했다.

류제국 마이너리그행

미국프로야구에서 뛰고 있는 우완투수 류제국(25·탬파베이 레이스)이 아쉽게 마이너리그에서 시즌을 맞게 됐다. 탬파베이는 12일 류제국을 비롯해 좌완투수 데이비드 프라이스, 외야수 저스틴 러기아노 등 세명을 마이너리그로 내려보냈다고 밝혔다.

이로써 류제국은 스프링캠프의 주전경쟁에서 탈락해 2년 연속 개막전 로스터에 오르는데 실패했다. 류제국은 이날 미네소타 트윈스와 경기에서 팀의 네번째 투수로 구원등판해 1이닝 동안 안타 3개와 폭투로 1실점하는 등 시범경기 3이닝에서 평균 자책점 3.00으로 강한 인상을 남기지 못했다.

트리플A 더럼 불스에서 뛰게 될 류제국은 지난 달 말 개막 로스터 25명에 들면 최대 41만달러를 손에 넣고 마이너리그로 떨어지면 10만6천달러를 받는 스플릿 계약을 했다.

골프·콘도 회원권거래 전문기업
록펠러 회원권
상담문의 (062)351-0095